

〈2019 국가직 9급 채용 가답안 라책형 기준〉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②	③	④	④	①	④	②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①	①	③	①	①	②	③	②

문 1.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연천 전곡리에서는 사냥도구인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다.
- ② 창원 다호리에서는 문자를 적는 붓이 출토되었다.
- ③ 강화 부근리에서는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되었다.
- ④ 서울 암사동에서는 곡물을 담는 빗살무늬토기가 나왔다.

1. 정답 ③

[정답 해설]

강화 부근리는 탁자식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는 청동기 시대 유적지로, 고창 · 화순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연천 전곡리는 구석기 시대 유적지이다.
- ② 창원 다호리는 철기 시대 유적지이다.
- ④ 서울 암사동은 신석기 시대 유적지이다.

문 2. (가), (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음력 12월에 지내는 제천행사가 있는데, 이를 영고라고 한다. 이때에는 형욕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 주었다.
(나) 해마다 10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마시며 노래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 삼국지 -

- ① (가) - 5부가 있었으며, 계루부에서 왕위를 차지하였다.
- ② (가) - 정치적 지배자로 신지, 읍차 등이 있었다.
- ③ (나) - 죄를 지은 사람이 소도에 들어가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 ④ (나) -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나 소, 말로 변상하였다.

2. 정답 ④

[자료 분석]

(가)는 부여(12월에 영고), (나)는 동예(10월에 무천)와 관련된 사료이다.

[정답 해설]

- ④ 동예는 씨족 사회의 전통이 남아 있어 족외혼이 엄격히 지켜졌고, 산천을 중시하여 산과 내마다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만약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노비나 소, 말로 배상해야 하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오답 피하기]

- ① 부여도 5부족 연맹왕국이었지만 계루부가 왕위를 계승한 것은 고구려이다.
- ② 신지, 읍차는 삼한의 군장 명칭이다. 부여는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는 4부족장이 지방을 다스렸다.
- ③ 소도는 삼한의 신성 지역으로,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렸다.

문 3. (가) 왕의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이자겸, 척준경이 말하기를 “금이 예전에는 작은 나라여서 요와 우리나라를 섬겼으나, 지금은 갑자기 흥성하여 요와 송을 멸망시켰다. …(중략)…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선왕의 도이니, 마땅히 우선 사절을 보내야 합니다.” 라고 하니 (가) 이/가 그 의견을 따랐다.

- 고려사 -

- ① 몽골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
- ② 서경에 대화궁을 짓게 하고 청제건원을 주장하였다.
- ③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주자가례 를 보급하였다.
- ④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정치를 주도하였다.

3. 정답 ②

[자료 분석]

제시문은 이자겸이 금의 사대 요구를 수용하는 사료로, 인종 대인 1126년의 역사적 사실이다.

[정답 해설]

- ② 인종 대에는 묘청 등이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서경으로 도읍을 옮길 것을 건의하였다. 이들은 서경에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짓고, 왕을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할 것(칭제 건원)과 금을 정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몽골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도로 천도한 것은 고종 때(최우 집권기)인 1232년이다.
- ③ 성리학을 수용한 것은 고려 후기 충렬왕 때로 안향에 의해 이루어졌다.

- ④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칭된 것은 충렬왕 때로, 원 간섭기 이후의 모습에 해당된다.

문 4. 밑줄 친 ㉠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상패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을 지닌 조선은 일본의 총칼 아래 민족정신을 무참하게 유린당했다. …(중략)… 조선민족은 독립항쟁을 줄기차게 계속하였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 1919년의 독립만세운동이었다.

- 네루, 세계사 편력 -

- ① ‘암태도 소작쟁의’가 일어났다.
 ② ‘정우회 선언’이 발표되었다.
 ③ 임병찬이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④ 조선 민립대학 기성회가 창립되었다.

4. 정답 ③

[자료 분석]

밑줄 친 ㉠에 해당하는 민족 운동은 3·1운동이다.

[정답 해설]

- ① 암태도 소작쟁의는 1923년에 발생했다.
 ② 정우회 선언은 신간회 결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1926년에 발표되었다.
 ④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는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주도한 단체로, 1923년에 조직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③ 임병찬이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것은 3·1운동 이전인 1912년이다. 독립의군부는 고종의 밀지를 받아 조직된 비밀 결사로 조선 왕실을 복원하려는 복벽주의를 지향하였다.

문 5. 밑줄 친 ‘성상(聖上)’대에 편찬된 서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조가 신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법의 과목(科目)이 너무 번잡하고 앞뒤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히 살펴 다듬어 자손만대의 성법(成法)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형전(刑典)과 호전(戶典)은 이미 반포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네 법전은 미처 교정을 마치지 못했다. 이에 성상(聖上)께서 세조의 뜻을 받들어 여섯 권의 법전을 완성하게 하여 중외에 반포하였다.

- ① 『동국병감』은 고조선에서 고려말까지의 전쟁을 정리한 병서이다.
 ② 『동몽선습』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은 아동교육서이다.
 ③ 『삼강행실도』는 모범적인 효자충신열녀를 다룬 윤리서이다.
 ④ 『국조오례의』는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한 의례서이다.

5. 정답 ④

[자료 분석]

세조의 뜻을 받들어 여섯 권의 법전(경국대전)을 완성해 반포했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성상’이 성종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 ④ 『국조오례의』는 1474년(성종 5)에 신숙주와 정적 등에 의해 완성되었다. 이 책은 국가의 기본예식인 오례, 즉 길례(吉禮)·가례(嘉禮)·빈례(賓禮)·군례(軍禮)·흉례(凶禮)에 대해 규정한 예전(禮典)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동국병감』은 김종서의 주도하에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전쟁사를 정리한 것으로, 문종 때 편찬되었다.
 ② 『동몽선습』은 박세무가 저술한 아동용 교육 도서로, 중종 때 편찬되었다.
 ③ 『삼강행실도』는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열녀 등의 행적을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붙인 책으로, 세종 때 편찬되었다.

문 6. (가)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로소 직관(職官)·산관(散官) 각 품(品)의 (가) 을/를 제정하였는데,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그 등급을 결정하였다.

- 고려사 -

- ① 고려의 건국과정에서 충성도와 공로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
- ② 전임 관료와 현임 관료를 대상으로 경기지방에 한하여 지급하였다.
- ③ 산관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무반의 차별 대우가 개선되었다.
- ④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문반, 무반, 잡업으로 나누어 지급 결수를 정하였다.

6. 정답 ④

[자료 분석]

(가)에 해당하는 토지 제도는 시정전시과이다. 비로소 ‘(가)’를 제정했다는 내용을 통해 처음 전시과가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 ④ 경종 때(976) 제정된 시정전시과는 4색 공복(자단·바녹)을 기준으로 토지를 분급했으며, 4계층 가운데 자삼만 18등급으로 나누었다.

[오답 피하기]

- ① 고려의 건국과정에서 충성도와 공로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은 태조 때의 역분전(940)이다.
- ② 전임 관료와 현임 관료를 대상으로 경기 지방에 한해 토지를 지급한 것은 과전법(1391, 공양왕)이다. 전시과는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했다.
- ③ 산관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무반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시정된 것은 문종 때(1076) 실시된 경정전시과이다.

문 7. (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나)	
을미사변 발발	을사조약 강제 체결	13도 창의군 서울진공작전 전개

- ① (가) - 시전상인을 중심으로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다.
- ② (가) - 신민회는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 ③ (나) -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곡물 수출을 막는 방곡령을 내렸다.
- ④ (나) -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하기 위해 보안회가 창설되었다.

7. 정답 ①

[자료 분석]

을미사변은 1895년, 을사조약 체결은 1905년, 서울 진공 작전 전개는 1908년의 사건이다.

[정답 해설]

- ① 시전상인을 중심으로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된 것은 (가)시기인 1898년이다. 이들은 외국 상인들의 불법적인 상업 활동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② 신민회가 105인 사건으로 와해된 것은 서울 진공 작전 이후인 1911년이다.
- ③ 함경도 관찰사인 조병식이 방곡령을 선포한 것은 을미사변 이전인 1889년의 일이다.
- ④ 보안회가 창설된 것은 (가)시기인 1904년이다.

문 8. (가) 왕대의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은/는 흑수말갈이 당과 통하려고 하자 군사를 동원하여 흑수말갈을 치게 하였다. 또한 일본에 사신 고제덕 등을 보내 “여러 나라를 관장하고 여러 번(蕃)을 거느리며,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옛 습속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하여 강 국임을 자부하였다.

- ① 국호를 진국에서 발해로 바꾸었다.
- ② 신라는 급찬 승정을 발해에 사신으로 보냈다.
- ③ 대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④ 장문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8. 정답 ④

[자료 분석]

(가)에 해당하는 국왕은 발해 무왕이다. 흑수말갈이 당과 통하려고 하자 공격했다는 내용과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서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옛 습속을 지니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 ④ 무왕은 장문휴로 하여금 수군을 거느리고 산둥 반도를 공격하게 하였으며, 요서 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국호를 ‘진’에서 ‘발해’로 변경한 것은 대조영(고왕) 때인 713년이다.
- ② 급찬 승정이 발해에 사신으로 파견된 것은 신라 헌덕왕 때(812)이다.(당시 발해 국왕은 정왕 또는 혁왕 무렵)
- ③ ‘대흥’은 문왕 때 사용한 연호이다. 무왕 때는 연호로 ‘인안’을 사용했다.

문 9. 다음 전투를 이끈 한국인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군은 사도하자에 주둔 병력을 증강시키면서 훈련에 여념이 없었다. 새벽에 적군은 황가둔에서 이도하 방면을 거쳐 사도하로 진격하여 왔다. 그런데 적군은 아군이 세운 작전대로 함정에 들어왔고, 이에 일제히 포문을 열어 급습함으로써 적군은 응전할 사이도 없이 격파되었다.

- ①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창설하였다.
- ② 한국독립당의 산하부대로 동경성 전투도 수행하였다.
- ③ 미쓰야 협정이 체결되기 직전까지 활약하였다.
- ④ 양세봉이 총사령관이었다.

9. 정답 ②

[자료 분석]

제시문은 한국독립군에 대한 내용이다. 사도하자 전투(1933)에서 활약했다는 내용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 ② 한국독립군은 한국독립당의 산하 부대로, 북만주 지역에서 중국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펼쳤다. 이들은 쌍성보(1932), 사도하자(1933), 동경성(1933), 대전자령(1933) 전투 등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오답 피하기]

- ①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설한 군 조직은 조선의용대(1938)이다.
- ③ 한국독립군은 미쓰야 협정(1925)이 체결된 이후에 조직되었다.(1930)
- ④ 한국독립군을 이끈 것은 지청천이다. 양세봉은 조선혁명군을 이끈 인물이다.

문 10. 밑줄 친 ㉠ ~ ㉣과 관련된 임란 이후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서울 안팎과 변화한 큰 도시에 파마늘·배추·오이·밭 따위는 10묘의 땅에서 얻은 수확이 돈 수만을 헤아리게 된다. 서도 지방의 ㉡담배 밭, 북도 지방의 삼밭, 한산의 모시밭, 전주의 생강 밭, 강진의 ㉢고구마 밭, 황주의 지황 밭에서의 수확은 모두 상상등전(上上等田)의 논에서 나는 수확보다 그 이익이 10배에 이른다.
- 작은 보습으로 이랑에다 고랑을 내는데, 너비 1척, 깊이 1척이다. 이렇게 한 이랑, 즉 1묘 마다 고랑 3개와 두둑 3개를 만들면, 두둑의 높이와 너비는 고랑의 깊이와 너비와 같아진다. 그 뒤 ㉣고랑에 거름 재를 두껍게 펴고, 구멍 뚫린 박에 조를 담고서 파종한다.

- ① ㉠- 신해통공을 반포하여 육의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② ㉡- 인삼과 더불어 대표적인 상업작물로 재배되었다.
 ③ ㉢- 『감저보』, 『감저신보』에서 재배법을 기술하였다.
 ④ ㉣- 밭농사에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온 농법이였다.

10. 정답 ①

[정답 해설]

- ② 조선 후기에 농민들은 시장에 팔기 위한 상품작물을 재배하여 가계 수입을 증가시켰는데, 장사가 점차 증가하고 상품의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농민은 쌀, 목화, 채소, 담배, 약초 등을 재배하여 팔았다.
- ③ 감저보는 1766년(영조 42) 강필리가 고구마의 재배·이용법에 관하여 기술한 책이고, 감저신보는 1813년(순조 13) 김장순이 편찬한 고구마의 재배·이용법에 관한 책이다.
- ④ 조선 후기에는 밭고랑에다 곡식을 심는 이른바 견종법이 보급되어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오답 피하기]

- ① 정조 대인 1791년에는 당시 좌의정이었던 채제공의 건의로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신해통공)하여 자유로운 상업 행위를 진작시켰다.

문 11. 단군에 대한 인식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승휴의 『제왕운기』에서는 우리 역사를 단군부터 서술하였다.
 ②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은 단군 정통론의 입장에서 기술하였다.
 ③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단군의 건국 과정을 다루고 있다.
 ④ 『기마독립선언서』에는 ‘조선건국 4252년’으로 연도를 표기하였다.

11. 정답 ③

[정답 해설]

- ① 이승휴의 제왕운기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단군에서부터 서술하면서 우리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파악함으로써 자주성을 나타내고 있다.
- ②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은 단군을 정통국가의 시발로 하여 기자 - 마한 - 통일신라로 이어진다고 보고 삼국은 정통이 없는 시대로 간주하였으며, 고려·조선의 역사는 왕실을 중심으로 두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단군정통론은 이익과 안정복에 의해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 ④ 기마독립선언서에는 날짜가 조선건국 4252년 3월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건국의 시원이 단군 조선이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③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구려 시조 주몽에 대해 오언고율(五言古律) 형식으로 쓴 서사시이다. 내용상 서장, 본장, 종장의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서장에서는 동명왕 탄생 이전의 계보를 다루고, 본장에서는 동명왕의 출생에서부터 건국까지, 종장에서는 후계자인 유리왕의 사적과 작가의 감상을 적고 있다.

문 12. 다음 내용이 실린 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하늘의 명령과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서 반드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으니, 그런 뒤에야 능히 큰 변화를 타서 제왕의 지위를 얻고 대업을 이루었다. ... (중략) ...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이(神異)한 일로 탄생했음이 어찌 괴이하겠는가. 이것이 책 첫머리에 『기이(紀異)』 편이 실린 까닭이며, 그 의도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 ① 불교 승려의 전기를 수록한 고승전이다.
- ② 불교 중심의 고대 민간 설화를 수록하였다.
- ③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 ④ 유교적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12. 정답 ②

[자료 분석]

사료는 일연의 『삼국유사』 기이편 서문이다.

[정답 해설]

- ② 충렬왕 때에 일연이 쓴 삼국유사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의 고유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다. 또한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여겨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고종 때 각훈이 쓴 해동고승전은 삼국 시대의 승려 30여 명의 전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현재 일부만 남아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불교사를 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 ③ 삼국유사는 고조선에서부터 후삼국까지의 유사(遺事)를 모아 편찬한 역사서이다.
- ④ 인종 때에는 김부식 등이 왕명을 받아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역사서로서, 고려 초에 쓰여진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문 13. (가)의 체결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청군과 일본군의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되자 농민군은 폐정 개혁을 제시하며 정부와 (가) 을/를 맺었다. 이에 따라 농민군은 해산하였다.

- ① 남접군과 북접군이 논산에서 합류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였다.
- ②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을 동학도로 몰아 처벌하였다.
- ③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를 쌓아 수세를 강제로 거두었다.
- ④ 농민군이 황토현에서 감영군을 격파하였다.

13. 정답 ①

[자료 분석]

(가)에 들어갈 내용은 전주화약(1894. 5)이다. 1894년 청·일 양군이 조선에 상륙하면서, 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사태 악화를 우려한 정부 측은 폐정 개혁을 약속하고 동학 농민군과 전주화약을 체결하였다.(1894년 5월 8일)

[정답 해설]

- ①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1894. 6. 21)하고 내정 간섭을 강화함에 따라 동학 농민군은 9월에 재봉기하였다. 1894년 9월 전봉준의 남접과 손병희의 북접이 연합 부대를 형성하여 논산에 집결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③ 고부는 전라도 중에서 으뜸가는 곡창 지대였다. 그러나 고부 군수 조병갑은 만석보를 개수할 때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추수 때 수세로 700석을 착복하는 등 횡포를 일삼았다. 1894년 1월 전봉준은 조병갑의 학정에 맞서 천여 명의 농민과 고부 관아를 습격(고부 민란, 1894. 1)하여 군수를 내쫓고 아전들을 징벌한 뒤, 농민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10여 일 만에 해산하였다. 이에 정부는 고부 군수를 교체하였으며, 봉기에 대한 진상 조사를 위해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하였으나, 이용태는 민란 관련자를 역적죄로 몰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 ④ 1894년 4월 전봉준 등의 지도하에 농민군은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전라 감영군)을 물리쳤다.

문 14. (가)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호 '신라'	9주 5소경	대공의 난	독서삼품과
확정	설치	발발	실시

- ① 백성에게 정전을 처음으로 지급하였다.
- ②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신설하였다.
- ③ 백성의 구휼을 위하여 진대법을 제정하였다.
- ④ 청주(菁州)의 거로현을 국학생의 녹읍으로 삼았다.

14. 정답 ①

[자료 분석]

9주 5소경 체제의 지방 행정 조직을 완비한 것은 신문왕 때, 대공의 난은 768년 해공왕 때의 사실이다. 따라서 신문왕과 해공왕 사이 시기의 사실을 찾아야 한다.

[정답 해설]

- ① 성덕왕 21년(722)에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② 6세기 초 지증왕 때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509)하였다.
- ③ 2세기 후반 고구려 고국천왕 때 을파소를 국상으로 임명하여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춘대추납 제도인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 ④ 소성왕 원년(799)에 청주 거로현으로 국학생의 녹읍을 삼았다.

문 15.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본떠 만들어졌다.
- ②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식 목조 건물이다.
- ③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서는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가 발견되었다.
- ④ 김제 금산사 마루전은 다층 건물이나 내부가 하나로 통한다.

15. 정답 ③

[정답 해설]

- ① 원간섭기 충목왕 때 건립된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본뜬 것으로 조선 세조 때 만든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었다.
- ② 고려 전기에는 주로 주심포 양식이 유행하였는데, 13세기 이후에 지은 일부 건물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이 있다.
- ④ 17세기의 대표적 건축으로는 김제 금산사 마루전, 구례 화엄사 각황전, 보은 법주사 팔상전 등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규모가 큰 다층 건물로,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③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가 발견된 것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다. 2009년 1월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서 사리봉안기가 출토되었는데, 여기에 무왕의 비가 사택적덕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리봉안 기록에는 시주자의 신분이 무왕의 왕후이며, 좌평인 사택적덕의 딸이라는 사실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백제 서동 왕자(무왕)가 향가 '서동요'를 신라에 퍼뜨려 신라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와 결혼했다는 『삼국유사』의 내용과는 다른 것이다. 충남 부여에 위치한 정림사지 5층 석탑은 1층 탑신 면에 당의 장수 소정방이 백제 정벌을 기념하여 새긴 '대당평백제국비명'이라는 글 때문에 '평제탑'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문 16.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세붕이 비로소 (가) 을/를 창건할 적에 세상에서 자
못 의심했으나, 그의 뜻은 더욱 독실해져 무리들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비방을 극복하여 전례 없던 장한 일을 이루었습니
다. …(중략)… 최충, 우탁, 정몽주, 길재, 김종직, 김굉필 같
은 이가 살던 곳에 (가) 을/를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 퇴계집 -

- ① 학문 연구와 선현의 제사를 위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이다.
- ② 성적 우수자는 문과의 초시를 면제해 주었다.
- ③ 선비와 평민의 자제에게 천자문 등을 가르쳤다.
- ④ 지방의 군현에 있던 유일한 관학이다.

16. 정답 ①

[자료 분석]

(가)에 해당하는 교육 기관은 서원이다. 서원은 중종 38년(1543)
풍기 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시초이다.

[정답 해설]

① 서원은 학문 연구와 선현 제향을 위하여 사람에 의해 설립된
사설(사립) 교육기관이다.

[오답 피하기]

② 성균관 ③ 서당 ④ 향교에 대한 설명이다.

문 17. (가), (나)가 설명하는 조약을 옳게 짝 지은 것은?

(가) 강화도 조약에 이어 몇 달 뒤 체결되었다. 양국의 무제
한 유출을 가능하게 한 규정과 일본정부에 소속된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들어 있었다.

(나) 김홍집이 일본에서 황준헌의 조선책략 을 가져 오면서
그 내용의 영향으로 체결되었으며, 청의 적극적인 알선이
있었다. 거증조정 조항과 최해국 대우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

(나)

- | | |
|------------|----------|
| ① 조일무역규칙 | 조미수호통상조약 |
| ② 조일무역규칙 | 조러수호통상조약 |
| ③ 조일수호조규부록 | 조미수호통상조약 |
| ④ 조일수호조규부록 | 조러수호통상조약 |

17. 정답 ①

[자료 분석]

(가)는 1876년 일본과 체결한 조일 무역 규칙, (나)는 1882년 체
결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다.

[정답 해설]

① 조일 무역 규칙에는 일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일본 선
박에 대한 무항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 허용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는 거증조정, 치외법권, 관세부과,
최해국 대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 18. 다음은 어떤 인물에 대한 연보이다. 밑줄 친

㉠ ~ ㉣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66년(31세) ㉠ 사간원 정언에 제수되다.

1568년(33세) ㉡ 이조좌랑이 되었으나 외할머니 이씨의 병
환 소식을 듣고 사퇴하다.

1569년(34세) 동호독서당에 머물면서 『동호문답』을 찬진
하다.

1574년(39세) ㉢ 승정원 우부승지에 제수되어 『만언봉사』
를 올리다.

1575년(40세) ㉣ 홍문관 부제학에서 사퇴하고 『성학집요』
를 편찬하다.

- ① ㉠-왕명을 출납하면서 왕의 비서기관의 업무를 하였다.
- ② ㉡-삼사의 관리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었다.
- ③ ㉢-왕의 정책을 간쟁하고 관원의 비행을 감찰하였다.
- ④ ㉣-서적 출판 및 간행의 업무를 전담하였다.

18. 정답 ②

[정답 해설]

② 조선 시대 인사 업무는 이조에서 담당하였다. 이조에 배속된
관원들 중 정5품 정랑 3인과 정6품 좌랑 3인을 통칭하여 전랑
(銓郎)이라 불렀다. 이들 전랑은 비록 관직이 높지는 않았으나
권한은 매우 막강하였다. 조선의 여론 기관인 삼사(홍문관, 사
헌부, 사간원)의 관리를 추천하고, 자신의 임기를 마치면 후임
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대권도 가지고 있었다.

[오답 피하기]

- ① 왕명을 출납하는 왕의 비서 기관은 승정원이다. 사간원은 간쟁
하고 정사의 잘못을 논박하는 직무를 관장하였다.
- ③ 왕의 정책을 간쟁하고 관원의 비행을 감찰한 것은 사헌부이다.

간쟁은 제도적으로는 사간원에서 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사헌부에서도 행하였다.

- ④ 서적 출판 및 간행의 업무를 맡은 기관은 교서관이다.

문 19. 다음 글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릇 동양의 수천 년 교화계(敎化界)에서 바르고 순수하며 광대 정밀하여 많은 성현들이 전해주고 밝혀 준 유교가 끝내 인도의 불교와 서양의 기독교와 같이 세계에 큰 발전을 하지 못함은 어찌서이며 …(중략)…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는지라. 그 3대 문제에 대하여 개량하고 구신(求新)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유교는 흥왕할 수가 없을 것이다.

- ① 『독사신문』에서 민족을 역사서술의 주체로 설정하고 사대주의를 비판하였다.
 ② 주식부주식 체제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주석을 역임하였다.
 ③ ‘나라는 형(形)이고 역사는 신(神)’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조선열’을 강조하며 ‘조선학 운동’을 펼쳤다.

19. 정답 ③

[자료 분석]

자료는 유교의 개량과 혁신을 주장한 박은식의 논문 유교구신론의 일부 내용이다.

[정답 해설]

- ③ 박은식은 한국통사에서 ‘옛 사람이 말하되 나라는 가히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가히 멸할 수 없으니, 대개 나라는 형(形)이나 역사는 신(神 또는 혼)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신채호 ② 김구 ④ 정인보에 대한 설명이다.

문 20. (가) ~ (라)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라)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제의하였다.

- ① (나)→(가)→(라)→(다)
 ② (나)→(다)→(가)→(라)
 ③ (다)→(가)→(나)→(라)
 ④ (다)→(나)→(가)→(라)

20. 정답 ②

[정답 해설]

- (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1945년 8월 15일 결성되었다.
 (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는 1945년 12월에 열렸다.
 (가) 1946년 10월 좌우 합작 위원회는 좌익과 우익의 제안을 절충해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라)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 분단을 저지하기 위하여 북한에 남북 협상을 제의한 시기는 1948년 2월이고 1948년 4월에 남북 협상이 열렸다.